



2020년 8월 9일(제994호) 연중 제19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나를 이끌어주는 것”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모든 것이 두려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순간. 좌절하고 쓰러졌을 때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고 싶은 순간. 이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도, 사제가 되어 사목활동을 하던 때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이끌어 주시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호수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께서 등장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으려 용기를 내어봅니다. 그리고는 어렵사리 한 발짝씩 주님께 다가갑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물 위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따뜻한 한마디와 그 안에 담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물 위를 걷는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이끌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고, 어두움을 몰아내며, 좌절한 이를

일으켜주고, 지친 이에게 힘을 줍니다. 사제는 서품을 받을 때 저마다 한평생 사제로 살아가며 마음에 새길 성경 구절을 정합니다. 그것을 ‘서품 성구’라고 부르는데요. 저의 서품 성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2코린 5,14)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를 이끌었던 것처럼, 언제나 저 자신을 이끌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믿으며 사제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지치고 힘들 때 어떤 것들에 의지하시나요? 술기운에 취해 잊어보려 한다거나, 게임에 빠져 도피한다거나, 쇼핑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진정으로 나를 삶의 무게에서 해방해주지 못합니다. 나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힘, 다시금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한 치 앞을 볼 수도 없는 암흑 속에서도 등대처럼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는 것은 그분의 성심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에 힘을 얻어 다시금 힘차게 나아가는 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김경욱(미카엘) 신부  
회상대(10진비전) 성당 주임

- 제 1 특 시 1열왕 19,9ㄱ.11-13ㄱ
- 회답송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제 2 특 시 로마 9,1-5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
- 복 음 마태 14,22-33
- 영성제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 최필공 토마스



성인명: 최필공 토마스 (崔必恭 Thomas)

신분: 중인, 약재상, 순교자

활동연도: 1744-1801년

1744년 한양의 의원 집안에서 태어난 최필공(崔必恭) 토마스는 1790년에 사촌 동생인 최필제 베드로와 함께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그의 나이 46세 때였다. 토마스는 관직도 없는 데다가 가난하여 그때까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품만은 솔직하고 너그러웠다.

천주교에 입교하자마자 최 토마스는 교리를 실천하는 데 큰 열성을 보였다. 그는 공공연하게 교리를 전파하고 다녔으며, 이로 말미암아 박해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1791년 신해박해가 일어나자, 최 토마스는 몇몇 지도층 신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때 함께 체포된 동료들은 대부분 배교하고 석방되었지만, 그는 교리를 설명하면서 목석처럼 신앙을 고수하였다. 박해자들은 온갖 수단을 써서 최 토마스를 배교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때 사촌 동생인 최필제 베드로는 거짓으로 최 토마스의 자백서를 써서 박해자들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 정조 임금은 관리들에게 명하여 '최필공을 옥에 가두되, 특별히 보살피 주도록 하라.'고까지 하였다. 결국, 그는 이러한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다.

석방된 뒤 최 토마스는 평안도 지방의 심약(조정에 올리는 약재를 검사하는 직책)에 임명되었다. 또 임금의 도움으로 혼인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 토마스의 마음에는 여전히 천주 신앙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3년 뒤, 그는 심약 자리를 사임하고는 한양으로 돌아와 다시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그는, 1794년 말 주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자, 주 신부를 찾아가 성사를 받고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였다.

최 토마스는 1799년 8월에 다시 체포되어 문초를 받게 되었다. 이때 그는 1791년에 마음이 약해졌던 사실을 뉘우치면서 '그것은 본심이 아니었다.'고 고백하였다. 정조 임금은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되돌려 보려고 하였지만, 이번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용감하게 천주교의 주요 교리를 설명하면서 배교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관리들이 토마스를 참수형에 처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임금은 이를 거부하고 그를 석방해 주도록 하였다.

1801년의 신유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음력 12월 17일, 형조에서는 최 토마스를 다시 체포하였다. 이를 뒤에는 사촌 동생인 최필제도 체포하여 같은 옥에 가두었다. 최 토마스는 이후, 이전의 형실 때문에 누구보다 더 혹독한 형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의 신앙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었다.

얼마 안 되어 최 토마스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이미 나이가 많은 데다가 형벌과 옥고로 인해 사형장으로 가는 수레에 오를 때에는 거의 의식이 없었다. 그러나 사형장에 이르자 그의 얼굴에는 기쁨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 칼날이 그의 목을 비껴가면서 피가 손으로 흐르자, 최필공 토마스는 이것을 보면서 "보배로운 피!" 하고 외쳤다. 그때가 1801년 4월 8일(음력 2월 26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57세였다.

<b>복</b>	<b>음</b>	<b>록</b>	<b>상</b>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b>파도타기</b>				
		<p>아무리 큰 파도라 하여도      아무리 작은 유혹이라도          그 흐름을 잃고                      그 흐름을 놓치고          내 몸의 밸런스만                  내 마음의 밸런스를          잊지 않으면                              잊으면          파도에 먹히지 않는다.              여지없이 넘어지고 말지.</p>		

상화이야기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 그림은 거센 파도 속에서 흔들리는 배 안의 제자들과 그 와중에 흰 정령처럼 눈부시게 빛나시는 중앙의 예수님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다. 베드로는 이미 몸의 반쯤이 물에 빠진 상태이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빛이 바다를 멀리까지 비추고 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다. 아마도 제1독서에서 주님이 엘리야에게 지진과 불이 지나간 뒤 말씀하신,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셨을 것이다.

엘리야를 덮쳤던 바람, 지진, 불은 우리 인생에 매 순간 찾아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으시고, 그것들 사이 사이 속에, 혹은 그것들을 통과하고 아우르는 그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것이리라.

이이반 이이비(조스키, 1888년 제작)  
유희 / 크기 및 소장지 미상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9주일: 맹호 여성민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장회의  
    때·곳: 8월 11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봉헌식  
    때·곳: 8월 15일(토) 10:30,  
    성지배론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앞마당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사후를 따르”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리리.’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21,19)